

KBS 1TV <낭독의 발견> 연출하는  
황범하 프로듀서 )

책  
소리내어 읽으니  
귀울려  
마음  
적신다

책과 텔레비전이 만났다. 행여 불협화음이라도 날까 잔잔한 음악과 세련미 넘치는 무대장치가 곁에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이제 자타가 공인하는 각 분야 전문예술가, 문인 등이 나와 책을 펼쳐들고 시를 낭독한다. 어린 시절 선생님 호명이 떨어지면 재빨리 일어나 국어책을 읽어 대던 친구들 얼굴마냥 낭독에 심취하는 출연자들 얼굴에는 동심童심이 겹쳐진다. 모범생처럼 진지하게 읽는 이도 있고, 수줍은 소녀마냥 은근슬쩍 얼굴을 붉히며 시 한 구절 한 구절을 조심스레 읽어나가는 이도 있다.

매주 수요일 KBS 1TV의 <낭독의 발견>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작년 11월에 시작한 <낭독의 발견>은 최근 한국방송대상 학술예술부문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되면서 꺾직한 성과를 거뒀다. 시끄러운 도시소음과 거북스런 기계음으로 혹사당한 컷가를 글 읽는 소리로 말끔히 씻어준다는 의미에선 이보다 신선한 프로그램도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처음 아이템을 낸 건 홍경수 프로듀서였습니다. 얼마 전에 다른 프로그램을 맡게 됐는데 홍 프로듀서가 워낙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 낭독 아이템을 적극 제안하더군요. 아날로그적인 프로그램이라 처음엔 확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 회, 한 회 거듭하다보니 저희도 모르던 즐거움이 생기더군요. 장한나 양이 첼로 연주를 하는 건 쉽게 볼 수 있지만 시낭송을 하는 건 어디서도 쉽게 볼 수 없잖아요. 그걸 볼 수 있다는 데서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많 습니다. 그들이 소리내 글을 읽으면 시청자들은 몸으로 글을 받아들입니다.”

올해 5월부터 프로그램을 맡게 된 황범하 프로듀서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책을 다시 펼쳐보게 됐다”며 프로그램 자체의 탄생을 감사히 여긴다. 25분 동안 진행되는 짧은 프로그램이지만 교양국 프로듀서들이 가장 맡고 싶어 하는 일을 하게 됐으니 어깨가 결코 가볍지만은 않다.

그간 <낭독의 발견>에 얼굴을 내비쳤던 출연자들은 대부분 각 분야의 공인된 실력자들이면서 자기 세계가 뚜렷한 인물들이었다. 양희은, 안성기, 고두심, 노영심 씨 등 연기자와 황석영, 김훈, 안도현 씨 등 내로라하는 문인들도 나와 책을 읽었다.

이름과 직업, 나이, 하는 일, 자신만의 세계가 다르듯



이들의 낭독법은 제각각이었다. 또한 텍스트도 모두 달랐다. 황석영 씨는 자신의 소설 《장길산》의 한 대목을 읽었고, 안성기 씨는 정현종 씨의 시를 낭독했다. 낭독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 이도 있었는데 가수 양희은 씨의 눈물에 진행자 송선미 씨 역시 눈시울을 적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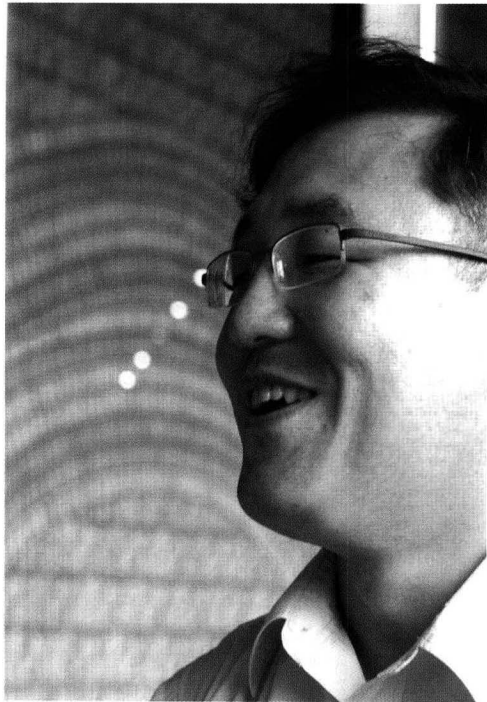
“시청자들도 좋아하시지만 출연자들이 더 좋아하세요. 사실 섭외하는 게 가장 큰 골칫거리였거든요. 프로그램에 대해 확신을 못 갖는 출연자들이 많았지요. 요즘은 출연해 주셨던 분들이 지인들을 소개해 주세요. 그 분들 모두 흡족해하셨고 또 출연하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짧은 시간이지만 책을 읽고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마음에 담아두었던 얘기를 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입니다. 가식적이거나 꾸밈이 전혀 없어 부담을 안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낭독으로 신이 나는 건 출연자, 시청자만이 아니다. 간혹 제작진측에서 출연자에게 어울리는 텍스트를 추천해주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출연자들이 직접 자신이 낭독할 글을 선정해 온다. 제작진으로선 “그 연예인 혹은 그 문인은 어떤 스타일일까?” 궁금한 만큼 “어떤 시와 글귀를 보내올까?”도 기다려진다. 그들이 어떤 표정과 목소리로 낭독을 할지를 상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는 고백이다.

“낭독 후에 연주를 따로 듣기도 하고 출연자들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시간도 주어지지요. 출연자 대부분이 자기 세계가 확실한 공인된 인물,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오른 인물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읽은 책 이야기도 많이 해주십니다. 듣고 있으면 책만큼 좋은 얘기들이 절로 나오지요.”

황 프로듀서는 ‘아날로그적’이라 말했지만 정작 <낭독의 발견>은 어느 프로그램 못지않게 시각, 청각적 효과에도 신경을 쓴다. 제작진은 ‘책’이란 아날로그적인 매체를 디지털 매체 속에서 펼쳐보고 낭독한다는 데서부터 다양한 고민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낭독의 맛깔을 배가시키는 데 무대, 영상, 음악 등도 한몫을 단단히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첫방송 이래 아트디렉터 윤이서, 음악감독 강승원, 피아노 연주 신이경 등 각 분야 실력자들이 시각, 청각적 효과를 완벽하게 책임지고 있다.

제작진들은 출연하는 게스트, 낭독할 텍스트에 따라서 그에 맞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어한다. 고두심 씨가 출연했을 때는 해금과 비올라가 나왔고, 황석영 씨가 《장길산》을 읽을 땐 북이, 김훈 씨가 《칼의 노래》를 읽을 때는 거문고가 출현했다. 한번은 연극적인 비주얼까지 시도해 텍스트와 음악, 미술 등이 모두 합쳐진 종합예술적 면모도 보여줬다. 요즘 사람들에겐 익숙하면서도 한편으론 낯설어



• 황범하 프로듀서는 “명사들이 소리내 글을 읽으면 시청자들은 몸으로 글을 받아들인다”고 말한다

진 ‘독서’를 거부감 없이 권해 보려는 고민 끝에 나온 방법들이다.

“시 청률은 크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시청률을 의식하지 말라는 윗분들의 배려가 있었지요. 지금은 3퍼센트에서 5퍼센트 정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이고 교양프로그램인 데다가 책을 알리고 시를 알리고 숨겨진 정서를 알리는 일이니 모두

들 허락해 주셨지요. 최근에는 온라인에 시청자 모임도 개설되고 마니아층의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온라인 모임에서 활동하는 <낭독의 발견> 마니아들은 얼마 전 정태춘 씨의 녹화에 직접 출연해 함께 책도 읽고 질문도 던졌다. 처음엔 ‘남도의 발견’, ‘낭만의 발견’, ‘남북의 발견’ 등의 이름으로 잘못 불릴 만큼 낯설기만 했던 <낭독의 발견>은 이젠 고정팬까지 확보하고 있는 걸출한 프로그램으로 성장했다. 황범하 프로듀서는 앞으로도 “책을 입으로 소리내 읽고 몸으로 느끼는 즐거움을 더 많은 시청자들이 얻어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신경쓰고 싶다”고 밝혔다.

책읽기 좋은 계절 9월, <낭독의 발견>은 켈리스트 장하나, 가수 정태춘, 시인 김정란 씨 등을 초대할 예정이다. 정태춘 씨는 추억이 묻어나는 자전거, 풍차 배경 아래 멋진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고, 켈리스트 장하나 양은 일찍부터

직접 고른 시 세 편을 보내올 만큼 열성을 보였다. 또한 시인 김정란 씨는 “‘낭독의 대가’로 인정받을 만한 실력을 보여줌으로써 제작진은 물론, 시청자들을 크게 감동시킬 것”이란 황 프로듀서의 귀뜸이다. **▶**

취재 | 김청연 기자 · 사진 | 박신우 기자

